

# “모래내시장서 치맥가맥 즐겨요”

### 전주시, 19~20일 ‘모래내시장 치맥가맥 페스티벌’ 3년 만에 개최... 먹거리·문화행사 ‘가득’

전통시장에서 갖 튀겨낸 맛있는 치킨과 한여름 무더위를 식혀줄 시원한 맥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3년 만에 열린다.

전주시는 오는 19일과 20일 이틀간 모래내시장 일원에서 ‘2022 모래내시장 치맥가맥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19의 여파로 3년 만에 개최하는 모래내시장 치맥가맥 페스티벌은 시장에서 판매하는 생닭을 튀겨 식어도 맛있는 치킨과 전주의 명물인 가계맥주와 수제맥주까지 맛볼 수 있는 축제이다.

이번 축제에서는 시장 치킨과 가

맥, 수제맥주 등 다양한 먹거리와 더불어 축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다양한 문화행사도 마련된다.

먼저 페스티벌 첫날인 오는 19일에는 개막 및 식전 공연으로 난타 공연이 진행되고, 개막 축하 특집 공개방송(SK보로드TV 공개녹화)과 DJ DG&엘리스의 역동적이고 신나는 EDM파티도 펼쳐진다.

이어 20일에는 고객이 함께 참여하는 치맥 마이크 ‘놀면 뭐하니?’와 함께 ‘스트릿 댄스파이터’ 공연도 마련돼 이번 축제의 흥을 더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축제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속에 진행되는 만큼 주요 옥외 행사 진행 시 마스크를 착용토록 권고하고, 주기적인 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할 계획이다.

모래내시장 치맥가맥 페스티벌에 앞서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전주 종합경기장 야구장에서는 전주시 맥 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2022 전주시 맥축제’가 펼쳐진다.

전주시 맥축제도 지난 2019년 축제 이후 코로나19의 여파로 열리지 못했다.

강경표 모래내시장 상인회장은 “모래내시장 치맥&가맥 페스티벌이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만큼 전주시민과 관광객들이 시장을 방문해 무더위를 식히고 전통시장의 옛 추억과 정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모래내시장 치맥가맥 페스티벌’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문화관광형)’에 선정돼 전주 모래내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단장 조범석, 이하 사업단)과 모래내시장상인회(회장 강경표)가 주최하는 행사로, 전주시역 대표 시장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해왔다.

/김재훈 기자

# ‘평생학습’으로 배움의 기쁨 선사

### 전주시, 5개 분야 55개 강좌 마련... 11~18일 수강생 모집

전주시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위축된 시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의 기쁨을 선사하기 위해 다채로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시는 시민들에게는 학습하는 문화 확산과 배움의 기회를, 코로나19로 설 자리를 잃은 평생학습 강사에게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생활문화·문화예술·인문교양·생활환경·단기특강 등 5개 분야 55개 강좌로 구성된 ‘평생학습대학’과 ‘우리학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

먼저 ‘평생학습대학’은 그동안 평생학습관에서 학습자들의 꾸준한 관심과 호응을 얻어오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22개의 강좌가 개설돼 14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만 6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컴퓨터 기초교육 및 스마트폰 활용교육 등을 포함한 생활문화교육 △생활 도자기와 서예 등 문화예술교육 △영어와 인문학을 배울 수 있는 인문교양교육 △과외포인트 등 실무에 사용할 수 있는 직업능력교육 등 총 22개 강좌가 개설된다.

‘우리학교’ 프로그램은 매 학기 평생학습 강사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이 중 선정된 강좌가 개설되며, 이번 2학기 프로그램에서는 참신한 33개의 강좌가 10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학교의 주요 프로그램은 △유튜브, 블로그 등 최근 유행하는 디지털 교육 △건강한 생활을 위한 라인댄스, 줄리안스 등 다양한 건강강좌 △환경까지 생각해보는 천연제품, 원예, 향초 만들기 등 생활공예 △일상 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하나씩 만들어보는 단기 특강 등이다.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주시평생학습관 누리집(e.jonju.go.kr)에서 세부일정 등을 확인한 후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거나, 평생학습관 1층 사무실을 방문해 신청서 접수하면 된다. 개설 프로그램 중 정원이 미달된 강좌의 경우 오는 25일까지 추가접수도 진행될 예정이다.

권인숙 시 인문평생교육과장은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불안 속에서도 시민들의 학습욕구 해소와 일상 회복이라는 희망으로 대면 운영을 결정했다”면서 “시민들이 알찬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2년 2학기 ‘평생학습대학’과 ‘우리학교’의 세부 프로그램 안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평생학습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063-281-5288)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재훈 기자

# 전주독서대전, ‘책 여행, 발견하는 기쁨’ 시민책방 운영

### 소장도서 교환·판매 참가 시민 30팀 31일까지 선착순 모집... 부스·책방 간판 지원

책의 도시 전주의 가을을 수놓을 ‘2022 전주독서대전’이 소장도서를 교환하거나 판매하는 시민들의 참여로 더욱 풍성해진다.

전주시는 ‘2022 전주독서대전’에서 시민들이 직접 일일 책방지기가 돼 헌책을 판매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시민책방’에 참가할 시민 30팀을 오는 31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올해 전주독서대전은 오는 9월 30일

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책 여행, 발견하는 기쁨’을 주제로 전주한벽문화관과 완관본문화관 등 전주시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행사 기간 완관본문화관 야외마당에 마련되는 ‘시민책방’은 개인이 평소 즐겨 읽거나 소장 중인 책을 다른 사람들과 사고팔 수 있는 교류의 장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가족 또는 지

인 등 2~3명으로 팀을 구성한 후 전주독서대전 누리집(www.jbook.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가팀에는 헌책을 판매할 부스와 책방 간판을 지원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시민책방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그동안 몰랐던 헌책의 다양한 매력과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라기 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은 “시민들이 2022 전주독서대전에서 헌책을 통한 나눔과 공유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헌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문화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책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독서대전 누리집(www.jbook.kr)을 확인하거나, 전화(063-230-1858)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재훈 기자

# 전주시, 정원문화 확산 위한 특강 진행

### 정원 조성 관심 있는 시민 대상 18일~10월 27일 총 9회

전주시가 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시민들의 정원 조성 관련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시와 (사)푸른전주는 오는 18일부터 10월 27일까지 전주 치명자성지 평화의전당에서 정원 조성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2022 정원문화특강’을 진행한다.

이번 정원문화특강은 △정원의 조성 과정 △사계절 정원관리 △인문학적 의전당에서 정원 조성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2022 정원문화특강’을 진행한다.

이런 정원문화특강은 △정원의 조성 과정 △사계절 정원관리 △인문학적 의전당에서 정원 조성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2022 정원문화특강’을 진행한다.

첫 강연으로 오는 18일에는 장영태 대한중묘원 원장이 ‘아생화 애(愛) 빠지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펼칠 예정이다.

또한 9차례의 특강 일정 중 3회는 △노래하는 정원(경기도 안성시) △베니따의 정원(경기도 용인시) 등 전국 곳곳에 위치한 아름다운 정원을 탐방하

는 방식으로 꾸며진다.

이번 특강은 3개월에 걸쳐서 진행되는 행사로 월 단위로 수강하고자 하는 특강을 신청할 수 있으며, 8월 특강신청은 8일부터 접수한다. 이후 9월 특강은 오는 18일부터, 10월 특강 신청은 9월 19일부터 각각 모집할 예정이다.

특강을 원하는 시민은 (사)푸른전주 누리집(www.greenjeonju.c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정원탐방 외 별도의 참가비는 없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푸른전주(070-7118-0515)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시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관계자는 “정원 전문가들의 노하우와 이야기가 담긴 정원문화특강을 통해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스스로 정원을 조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높여 정원문화를 확산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제8회 부모님과 함께 독서골든벨을 울려라!’

### 전주시 덕진품애작은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진행

전주시 덕진품애(愛)작은도서관(관장 안순이)이 지난 6일 ‘제8회 부모님과 함께 독서골든벨을 울려라!’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공립작은도서관인 덕진품애작은도서관이 여름방학을 맞은 초등학교 1~3학년 어린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4권의 선정도서를 읽고 퀴즈 맞추기를 통해 선정도서를 심도 있게 알아갈 수 있도록 기획한 독서프로그램이다.

참가한 어린이들은 △호랭이 꽃방귀(박윤규) △호랑이 왕자(첸 지양 흥) △도서관에 간 사자(미셸 누드슨) 등 ‘호랑이’와 관련된 도서 3권과 생활동화인 ‘뽕뽕 삼니다(전은희)’를 포함한

4권의 도서를 읽고 참여해 부모와 함께 문제를 풀었다. 이 중 ‘뽕뽕 삼니다’를 집필한 전은희 작가는 전주시에서 활동 중인 동화작가로, 어린이들의 고민을 신나고 밝게 풀어내 책을 읽은 학생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알려 주고 있다.

도서관 관계자는 “책과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방학 때마다 준비하면 참여자들에게 선물과 재미, 도서관에서의 멋진 추억을 선사할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전은희 동화작가가 행사에 직접 참여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우리 동네 작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시 덕진품애(愛)작은도서관이 지난 6일 ‘제8회 부모님과 함께 독서골든벨을 울려라!’ 행사를 진행했다.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 일반시민이라면?

-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증상이 있으시다면?

-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